

직장인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의 조절효과

이규달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Moderating effect of hope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esteem among workers

Kyu-Dal Lee
Doctoral Studen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 대전, 충청권에 소재하는 총 34개의 직장을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고 수집된 설문지 중 불충실하게 응답지를 제외한 분석대상은 총 301부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 조절효과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변인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 주도사고의 조절효과가 규명되었다. 그러나 희망 경로사고의 조절효과는 규명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희망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희망, 자아존중감, 조절효과, 직장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hope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esteem of worker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4 workplaces located in Seoul, Daejeon, and Chungcheong were selected and surveyed, and a total of 301 copie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cluding unfaithful responses.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ear of negative evalua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other variable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emaining variables. Secon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the moderating effect of agency thinking of hope was identified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esteem.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thway thinking of hope has not been identified. Finally, based on this study, we discussed ways to increase the self-esteem that was lowered due to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pecifically suggested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ies using hope.

Key Words : Fear of negative evaluation, Hope, Self-esteem, Moderating effect, Workers

*Corresponding Author : Kyu-Dal Lee(besof@naver.com)

Received August 18,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October 10,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1. 서론

자기 개념(Self-concept)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지각하고 평가하는 인지적 관념 체계이다[1]. 이는 본질적으로 가치 지향적이고 개인의 생각이나 견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자기 개념에 대해 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왔다[2]. 이러한 자기 개념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 만일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고자 하는데 욕구와 연계하여 외부로 드러난다면 자연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기준에 따라 예비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지나친 염려감과 함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된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 암시와 예상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그 대상이 본질적이지는 않다. Mark와 Gelder[3]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청중 앞에서 평가받는 집합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대중 앞에서 부적절하게 보일 것이라는 믿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부정적(negative)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 불안의 주요한 특성이자 장애적 요소이다. 발표 상황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정도가 탄력성을 벗어날 경우 발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부적응을 경험한다. 비단 발표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 폐단은 결코 간과할 수 없겠다.

최정훈 등[4]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보이고 싶으나 그러한 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때 촉발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능력(ability)에 불안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족함을 비취 부정적 인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5].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태도와 관련 있으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경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6]. Maslow[7]에 의하면 그의 동기 위계이론에서 자아존중감은 인간적인 욕구 중 강렬하고 지속적인 심리로 작동한다고 하였다. 즉,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하나의 인간 욕구이며 인격체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수적이고 생존을 위한 결정적인 가치이다.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들은 적절한 환경 적응과 성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기실현의 근원적 본바탕을 제공한다[2]. 이는 개인의 성과와 자아존중감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심리 변인으로서의 희망은 Snyder 등[8]에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그는 희망을 한 개인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기를 지니고, 구체적인 경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질이라 정의하였다[9]. 이후 그는 이를 주도사고(agency thinking)와 경로사고(pathway thinking)로 명명하였다. 주도사고란 어느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고, 경로사고란 그러한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을 의미한다[9].

부정적(negative)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저하된 자존감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회피감과 관련이 밀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평가(evaluation)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11],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2]. 자신의 언행이 타인의 시선에서 수용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자기 자신의 인상을 부적절하게 주지시킬까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12]. 따라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불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경자 등[13]에 따르면 희망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암시적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일정한 시간 이후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즉각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양호한 자아존중감을 유지하였다[13]. 그러므로 희망은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하였던 연구들을 종합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희망은 그 사이에서 그 두려움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계는 희망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연구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던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희망의 조절효과를 실증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는 첫

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은 조절 효과를 보이는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부적절한 영향에 의해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개선하는 데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5]와 희망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2] 및 희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13]를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Research Model)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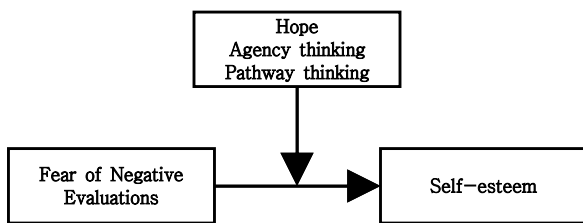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 대전, 충청권에 소재하는 총 34개의 직장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1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고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불충실하게 응답지를 제외하였고 분석대상 설문지는 총 301부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220명(73.9%), 여성이 79명으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연령 범위는 21세부터 64세까지로 평균 37.55세(±8.10)였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162명(53.8%), 미혼이 132명(45.4%)로 기혼이 많았다. 한편, 최종 학력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10명(71.7%)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문대 졸업 37명(12.6%), 고졸 이하 30명(10.2%), 대학원 졸업이 16명(5.5%)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회사에서의 지위를 살펴보면 사원급이 124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급이 60명(21.6%), 과장급이 57명(20.5%), 차장급이 17명(5.9%), 부장급이 15명(5.7%), 임원이 6명(2.5%)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Carleton 등(2006)이 개발한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BFNE)를 홍영근 등이 번안하고 정미경(2013)이 최종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4]. 이 척도는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8로 나타났다.

2.3.2 희망

희망은 Snyder, Harris, Anderson, Holeran, Irving, Sigmon[8]이 개발하고 이창식이 번안한 척도[1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주도사고로는 “나는 왕성하게 목표(goal)를 추구한다”, 경로사고로는 “나는 내 스스로 정한 목표(goal)를 따른다”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4개의 문항은 경로(pathway) 사고이고, 4개의 문항은 주도(agency)사고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가 .869, 경로사고인 경우 .807로 나타났고 주도사고인 경우 .796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6]의 Self-esteem Scale(SES)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인 경우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 5문항, 부정적인 문항인 경우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 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코딩하였고,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3으로 나타났다.

2.3.4 기타 변인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회사 내에서의 지위를 조사하였다.

2.4 자료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적 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SPSS Win 21.0을 활용하였다. 조절 효과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독립변수를 투입하였고, 2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3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및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희망의 하위 요인인 주도적 사고와 경로적 사고가 가장 높은 상관($r=.691, p<.01$)관계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희망의 하위 요인인 경로사고와 자아존중감($r=.551, p<.01$), 희망의 하위 변인인 주도사고와 자아존중감($r=.479, p<.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관계수의 범위는 $-.016 \sim .691$ 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변인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든 변인의 평균 값은 3.029를 상회하였고 희망의 하위 변인인 경로사고가 $3.703 \pm .58$ 로 가장 높았다.

Table 1. Correlation between the main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1.	2.	3.	4.
1.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1			
Hope	2. Agency	-.016	1	
	3. Pathway	.006	.691**	1
4. Self-esteem	-.109	.479**	.551**	1
M	3.029	3.587	3.703	3.593
SD	.63	.54	.58	.49

** $p<.01$

Table 2. Moderating effect of agency thinking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and self-esteem

	R	R ²	ΔR^2	β	t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109	.012	.008	-.109	-1.888($p=.060$)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agency thinking of hope	.489	.239	.234	-.101 .476	-1.993* 9.411***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agency thinking of hope fear of negative evaluations×agency thinking of hope	.500	.250	.243	-.133 .481 .112	-2.530* 9.553*** 2.122*

* $p<.05$, *** $p<.001$

3.2 조절효과 회귀분석

3.2.1 희망 주도사고의 조절효과

희망 주도사고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조절작용을 의미하는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112, p<.05$), 따라서 희망 주도사고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Aiken 등의 단순 기울기 분석[16]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Fig. 2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희망 주도사고 저집단보다 고집단이 부정평가 두려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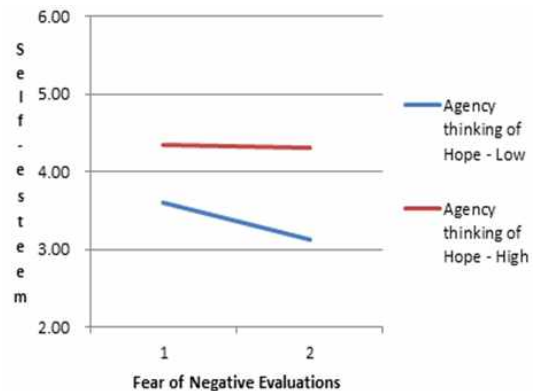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 of agency thinking of hope

3.2.2 희망 경로사고의 조절효과

희망 경로사고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099, p=.054$), 따라서 희망 경로사고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agency thinking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and self-esteem

	R	R ²	ΔR ²	β	t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109	.012	.008	-.109	-1.888(p=.060)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pathway thinking of hope	.562	.316	.311	-.112 .551	-2.338** 11.484***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pathway thinking of hope fear of negative evaluations×pathway thinking of hope	.569	.324	.317	-.149 .550 .099	-2.896** 11.509*** 1.936(p=.054)

** $p < .01$,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와 결론을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희망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희망이 자아존중감 증진에 효과적임을 시사하며,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한다[7, 9].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내생적 심리이나 본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므로 사회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17]. 만일 한 개인이 그들의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면 그는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보일 것이다. 또한, 지각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가치관과 유능감에 대한 희망과 강한 관련성을 지닌다[17]. 그러므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이로 인한 희망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직장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단순히 희망을 강조하는 회사 내에서의 업무 교육과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직장 내 근무 분위기와 인간 관계 등 환경에 적응토록, 내생적 심리를 개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둘째,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 주도사고는 조절효과를 보였고 희망 경로사고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존중감에 일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5]. 이에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에서 희망 주도사고는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경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희망 주도사고에 비해 희망 경로사고는 상대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이라는 인간의 의식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8]. 그

러나 희망 주도사고는 일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기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환경에 대한 의식과 이에 대한 인식 및 심리 변화는 밀접한 변수라 보아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희망 주도사고가 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적으로 일치하고 있다[18]. 그 이유는 희망 주도사고의 특수성에서 찾아야 한다. 희망 주도사고는 일종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상태로서 행위에 대한 지속성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변인은 기대되는 일의 성과에 대한 목표치를 높이며 반사적으로 일의 성취 결과에 대한 자신감과 확실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먼저, 희망 주도사고는 발표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 예비적 자기평가로부터 보호적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교육보다는 희망과 밀접한 심리들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본 연구에서는 그 역의 과정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다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은 양성적 되먹임으로 상호 악순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악순환 구조에 희망 주도사고가 개입하며 그 영향 관계를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 주도사고는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개선하는 데 궁극적인 도움을 주는 심리 변수라 지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대전 및 충

청권의 직장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차후에는 전국적인 표집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별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른 심리 변수들도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따른 또 다른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밝혀낸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직장인들이 겪게 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따라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개선하고 직장 및 사회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REFERENCES

- [1] S. M. Kwon. (1996). Characteristics of Depressed Group in Self-cognition Structure and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7-31.
- [2] S. Coopersmith.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3] I. M. Marks & M. Gelder. (1966). Different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 218-221.
- [4] J. H. Choi & J. Y. Lee. (1994). Irrational beliefs and situational factors in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6(1)*, 21-47.
- [5] H. J. Jung & S. J. Cho. (2020).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ir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PJCRI, 6(7)*, 133-141. DOI : 10.47116/apjcri.2020.07.13.
- [6]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7] D. H. Kim. (2019).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ive Need Satisfaction Measure based on 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6(4)*, 77-97. DOI : 10.35734/karp.2019.26.4.005
- [8] C. R. Snyder, C. Harris, J. R. Anderson, S. A. Holleran, L. M. Irving, S. T. Sigmon, L. Yoshinobu, J. Gibb, C. Langelle, & P. Harney.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9] C. R. Snyde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 [10] N. L. Kocovski & N. S. Endler. (2000). Social Anxiety, Self-regul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347-358.
- [11] M. R. Leary & R. M. Kowalski. (1995). *Social Anxiet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12] C. R. Hirsch & D. M. Clark. (2004). Information-processing bias in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799-825.
- [13] K. J. Hyun & J. H. Kim. (2017). Moderating Effects of Hope, Couple Intimacy and Utiliza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 on the Relationships of Stress and Depression or Conflict Response Behavior among the Multicultural Coupl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1)*, 140-180. DOI : 10.15709/hswr.2017.37.1.140
- [14] Y. K. Hong, J. H. Moon & H. J. Cho. (2011).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II.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1)*, 117-134.
- [15] Y. J. Kim & C. S. Lee.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539-547. DOI : 10.14400/JDC.2014.12.6.539
- [16] I. S. Aiken &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Sage.
- [17] J. M. Ryu. (2015). Testing the Mediated Models of Social Supports and Self-Esteem on the Connec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 Based on General Juveniles -. *The Study of Culture & Art, 6*, 71-104.
- [18] S. H. Jin & H. C. Shin. (2010). Moderating Effects of Hope on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Two Factor Model of Hop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4)*, 1519-1535. DOI : 10.15703/kjc.11.4.201012.1519

이 규 달(Lee, Kyu Dal)

[상화]



- 2019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박사 과정 학생)
- 관심분야 : 경영, 창업, 심리, 마케팅, 회계
- E-Mail : besof@naver.com